

세시풍속에 대한 여성의 인식 및 가사작업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oncept and the Present State of Women's Housework for
Traditional Customs of Four Seasons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허 성 미
교 수 한 재 숙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Doctoral course: Huh, Sung-Mee
Prof.: Han, Jae-Sook

〈 목 차 〉

I. 서 론	IV. 결과 및 고찰
II. 이론적 배경	V. 결과 요약 및 제언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 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rve as the basic data for the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26) mothers and their daughters living in Taegu.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through SPSS pc⁺ program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garding to the degree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Traditional Customs of Four Seasons, "New Year's Day", "Chusok(Chinese Thanks-giving Day)", "Sangwon(The 1st Full-Moon Day)", "boknal" are the occasions of the high participation.

Rega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participating, mothers' groups (compared with daughters'), the group with the positive concept about the customs(compared with the one with the negative concept), and the buddhist group(compared with other religion) are predominant.

2. Regarding to the degree of women's working lord for the Traditional Customs of Four Seasons, the significant variables on family environment in which the women are situated are family religion, The place of grown-up, Daughters-in-laws order, and family type.

Family type is found as the significant variable of Family environment in the degree of socialization of preparing effort of dishes.

3. Through factor analysis concepts of the Traditional Customs of Four Seasons are classified into 3 type, i.e., 「Conventional customs of good morals」, 「Women's role in preparation for dishes」, and 「The weights of the related load in women's housework」.
4. The direct factors influencing the women's housework related to Traditional Customs of Four Seasons are 「Conventional customs of good morals」, 「The weights of the related load in women's housework」, and 「The satisfaction of Traditional Customs of Four Seasons」. The indirect factor is found as 「Conventional customs of good morals」.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 세시풍속의 근원을 더듬어 보면 과거 인지가 발달되기 이전 시대의 절대적인 숭배대상이었던 天地·日月·星辰 및 先王·先朝 등에 대한 제천 의식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농경의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시풍속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관습적으로 되풀이 되는 특수한 생활행위, 즉 주기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의례적인 행위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를 「세시풍속(명절)」이라 일컬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시풍속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의 실학이 싹터 전개되는 과정과 병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대부분이 한자를 빌어서 기록한 내용이나 실학파의 이른바 민족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에 입각한 것이다. 세시풍속에 대해 학문적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을 들 수 있지만 歲時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18세기 후반에 쓰여진 유득공의 『경도잡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의 것으로 김만돈의 『열양세시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것으로 장지연의 『조선세시기』와 일본인

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세시기』, 『朝鮮の年中行事』 등이 전해져 오고있다. 이들에 나타난 세시풍속이나 세시음식에 관한 기록은 그 당시의 식생활 풍속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뿐만 아니라 세시풍속과 세시음식이 정착된 시기를 대략 18C로 추측해 볼 수 있기도 하다.

요즘말로 연중행사라 할 수 있는 이 풍속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 가운데 느끼는 단조로움을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생활에 활기와 울동감을 주어 좀 더 다채롭고 재미있는 삶을 누릴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경사회를 근간으로 했던 우리 민족의 실생활에서 세시풍속이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며 뿌리깊은 행사로 발전 변모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¹⁾¹⁰⁾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부터 「季節食」혹은 「時食飲食」이라하여 각 절기에 나오는 제철 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있었다. 이는 과거 계절에 따른 식품의 생산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각 절기마다 관습적으로 행해 먹던 음식이 정착하여 「時食飲食」 및 「歲時飲食(혹은. 名節飲食)」으로 불리워지면서 선조들의 생활속에 깊게 차지하게 되었다.¹¹⁾¹⁷⁾ 특히 세시풍속과 관계되는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는 데 뺄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각 절기에 나는 식품을 이용한 세시음식이다. 세시풍속에 따른 세시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순조로운 세시풍속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부분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으며 이를 담당하는 것은 여성이므로 실제 행사에 있어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가정의 여성들은 정성을 다하여 세시음식을 준비하였을 것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이는 과거 전통사회에서 여성역할에 대한 교육 내용 중 강조된 하나가 「婦功」이었으며 이것이 여성에게는 女兒때부터 강조되어온 것^{18)·20)}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알 수 있다. 전통사회의 많은 가정에서는 일년 중 치루어야 할 여러 행사 중 세시풍속과 관련되는 일이 적지않았을 것이고 이 행사는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수고를 필요로 하는 행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후 급속한 현대화의 물결속에 도시화 산업화 및 여성교육의 확대에 의한 여성 사회진출의 증가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농경사회를 모태로 한 세시풍속은 그 의미가 대부분 상실되어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는 행사가 많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시풍속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와 앞으로 우리의 가정생활문화를 계승할 그들의 딸을 대상으로 하여 세시풍속과 관련된 가사작업에 대한 실태 및 의식 등을 살펴보고, 이 의식이 여성의 가사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아 옛부터 전래되어져오는 가정생활풍속을 보다 잘 이해하여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사회의 세시일 및 세시음식

1) 정월달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설날

설은 새해의 시작으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보아 큰 명절로 여겼으며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날의 대표적 음식은 떡국으로, 이는 祭祀床 및 손님대접을 하는 데 歲續床에 올려졌다. 또 시루떡을 찌서 새해 神에게 빌기도 했다. 이외의 세시음식으로 세찬상에 올려 지는 것으로 만두 약식 단자류 처나 어류 편육 빈대떡 강정류 식혜 수정과 등과 歲酒 및 햇김치 등이 있다.

(2)立春日

입춘일에는 立春大吉이라는 春祝을 써서 대문에 붙이며 이 날 먹는 음식은 山芥(혹은 芥子)를 초장에 무쳐 먹거나 승검초(혹은 辛甘草)를 꿀에 적어 먹었다.

(3) 대보름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오곡밥과 묵은 나물로 반찬을 해서 먹고 15일 아침에는 부스럼이 나지않도록 '부럼'을 깨물며 아침상에는 귀가 밝아지라는 의미로 귀밝이 술을 놓는다. 뿐만아니라 福囊(복쌈)라하여 참취나물이나 김 등으로 밥을 싸 먹으며 풍년을 기원하였다.

(4) 飯餅禱神

음력 정월 중 길일을 택하여 팔시루떡을 찌서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2) 이월달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中和節(노비일)

2월 초하룻날 송편을 만들어 노비의 나이수만큼 먹는 풍습으로 이는 농사의 시작에 앞서 노비의 사기를 돋우기 위함이었다.

3) 삼월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삼진날

음력 3월 3일날 화전놀이를 하면서 봄의 정취를 즐기던 풍속으로 이날은 花煎 花麵 水麵 쑥경단 등을 먹었다.

(2) 寒食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 찬 음식이나 한식면(메밀국수)을 먹기도 하였다.

4) 사월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초파일

석가모니의 탄신일로 불교에서는 아주 큰 명절이며 이 날은 느티떡과 미나리나물을 먹고 붉은 콩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

5) 오월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端午(수릿날)

이 날은 아녀자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등과 같은 端午粧을 하며 항간에서는 장을 담기도 한다. 이날 오시(오전11시에서 오후1시까지)에 15세 된 처녀들이 입으로 뜯은 쑥이 약효가 있다고 한다. 이날은 쑥떡을 먹는 데 그 모양이 수레바퀴 같다고 하여 수릿날이라 한다.

6) 유월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流頭

6월 보름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버리는 풍속이 있는 날이다. 액막이를 위해 流頭宴을 베풀고 수단 건단 유두면 등과 같은 음식을 먹었다.

(2) 三伏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며 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음식으로 개장국 삼계탕 등을 먹었다.

7) 칠월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七夕

음력 7월 7일의 밤을 칠석으로 지키는데 이날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 보며 음식으로는 수단을 해 먹었다.

(2) 中元(百中日)

7월 보름날 절에서 승려들이 재를 올리거나 민가에서는 조상의 사당에 천신하거나 이날 밤 떡 과일 등을 차려놓고 죽은 아버지의 혼을 부르다하여 亡魂日이라 한다.

8) 팔월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秋夕(嘉俳, 한가위)

8월 보름날로 그 기원은 신라풍속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날은 새곡식으로 송편을 빚어먹고 토란탕 화양적이나 누름적 닭집 등을 먹는다.

9) 구월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中陽節

9월 9일을 가르키며 이날의 절식으로는 국화전 국화주 화채 등을 먹었다.

10) 시월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午日

이 날은 말의 날로 팔 시루떡을 하여 외양간에 두어 말의 건강을 빈다.

11) 동짓달 세시일과 세시음식

(1) 동지

동짓날을 다음 해가 되는 날이라 하여 亞歲라 하며 이날 팔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 문짝에 뿌리거나 발라서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하였다.

12) 선달의 세시일과 세시음식

(1) 臘日

동지가 지난 뒤 셋째 未日을 말하며 종묘와 사직에 큰 제사를 지내며 참새를 잡아 어린아이에게 먹이면 마마를 없앨 수 있다고 믿어 참새고기를 먹었다.

2. 세시일 및 세시음식의 시행실태

우리나라의 명절과 절식의 실태에 대한 조사로는 임양순(1986)이 도시 농촌지역간의 세시행사의 비교를 시도했으나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재 지키고 있는 명절로는 설날 추석 대보름 동지 정도이며 절식도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였으며 나문숙(1989)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김향희 등(1991)의 연구에서 명절과 절식의 시행실태를 지역별로 비교한 연구에서 강릉 지역에서는 단오가, 대구지역은 초파일과 삼복의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실시된다고 하였으나 비교적 앞의 두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기간 및 대상

1차 예비조사(92년 6월 17일-20일) 및 2차 예비조사(92년 7월 3일-6일)는 대구시내 수성구에 위치한 중여자고등의 여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 2차 예비조사 인원은 각각 160명(회수율, 85%), 120명(회수율, 약 87%)이었다. 본조사(92년, 7월 13일-18일)는 대구시내의 동 서 남 북 수성구 달서구에 위치한 여자중 고등학교의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100명에게 배부된 설문지의 회수율은 약 89%(980명)였고, 자료의 기재 내용이 부실한 것 등을 제외한 926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2. 조사 도구

1) 세시일에 따른 세시음식의 실태 및 의식

1차 예비조사의 설문내용은 세시일에 따른 세시음식에 관한 실태 및 풍속에 대한 98문항(강인희:1989, 이광규:1987; 이차숙:1988)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 및 상황 등에 관한 11문항이었다. 이 설문 문항을 조사도구로서 사용하기가 적합한지를 살펴보기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alpha=.92$ $\alpha=.53$ 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 세시풍속에 관한 문항수가 많고 본 연구의 목적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세시일 및 이에 따른 세시음식에 관한 58문항을 선정하여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alpha=.90$, $\alpha=.56$ 으로 나타났으며 2차 예비조사 결과 지적된 몇가지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 도구로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및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분석시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거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었다.

3. 자료의 처리

선별된 분석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χ^2 -test,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e-test, Factor analysi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Path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세시풍속의 시행에 관한 실태

1) 세시일 및 세시음식의 장만에 대한 실제 참여 상황¹⁾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명절은 어머니와 딸 모두 설날 추석 대보름 동지 삼복 초파일 단오 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선행된 임양순(1986), 김향희 등(1991) 및 나문숙(1989)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2) 가족환경변인 및 모녀간에 따른 세시풍속의 시행

<표 2>는 가족환경변인 및 모녀간에 따라 세시풍속의 시행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Oneway-Anova를 하고 각 하위영역간의 차이검증은 Scheffe-test를 한 결과이다. 그 결과 불교를 믿는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세시일 및 이에 따른 세시음식에 대한 실제 참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불교가 국교였으며 나머지 종교집단보다도 우리나라에 전래된 역사가 오래되었고 실제 세시행사의 내용에도 불교와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어산촌에서 성장한 경우 세시풍속에 참여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농어산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세시풍속과 관련된 일에 대한 애착이나 관습을 지키

1) 이와 관련된 표는 지면관계상 제시되지 않았으나 요구에 따라 본 연구자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음.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어		니		N(%) ^{b)}		
				딸		
연령	34세 이하	8(1.8)		연령	12세	27(5.8)
	35-40 이하	144(32.1)			13세	104(22.5)
	41-45 이하	223(49.8)			14세	160(17.6)
	46-50 이하	57(12.7)			15세	62(6.8)
	50세 이상	16(3.6)			16세	68(7.5)
계		448			17세	41(8.9)
				계		462
본인 불교		232(50.1)		본인 불교		96(20.7)
의 기독교		80(17.3)		의 기독교		116(25.1)
종교 천주교		43(9.3)		종교 천주교		44(9.5)
무교		104(22.5)		무교		204(44.1)
계		459		계		460
성장 도시		239(52.5)		성장 도시		417(90.1)
지 농어산촌		216(47.5)		지 농어산촌		45(9.7)
계		455		계		462
가정 불교		232(50.1)		어머니의 있다		165(35.6)
의 기독교		76(16.4)		직업유무 없다		298(64.4)
종교 천주교		38(8.2)		계		463
무교		113(24.4)		가사조력 있다		50(10.9)
계		459		저 유무 없다		413(89.1)
				계		463
머느리 맘 머느리		240(51.8)		가족의 핵가족		394(85.1)
순위 둘째 이하		221(47.7)		형태 확대가족		68(14.7)
계		461		계		462

1) 항목별로 무응답은 제외되어 사례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이하 모든표 동일)

려고 하는 의식이 다소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집단이 딸집단보다 실제 세시풍속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게 났다. 따라서 우리 문화의 계승자가 될 세대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배려가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 및 사회단체 등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의 요인분석

1)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의 요인분석결과

〈표 3-1〉은 세시풍속에 관한 10개의 인식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²⁾이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방법을, 요인의 행을 단순화시키는 배리맥스 회전방법을 하였다. 분석결과 Kaiser의 기준에 따라 eigen value가 1 이상인 3개의 요인이 채택되었으며 이 3개의 요인은 총분산을 약 67%정도 설명하고 있다.

2) 10개의 문항 중 communality가 0.4이하 인것을 제외시킨것이다.

〈표 2〉 가족환경변인 및 모녀간의 세시풍속의 시행정도

Groups	N	M	S,D	Scheffé F 및 t-value	
본인의 불교	296	98.34	12.49	a	17.64***
종교 기독교	173	91.27	11.82	b	
천주교	77	90.48	11.18	b	
무교	277	92.88	12.88	b	
성장시 도시	589	92.09	12.35		19.46***
농어산촌	235	92.27	13.14		
가족의 핵가족	699	93.67	12.68		9.07**
형태 확대가족	131	97.30	12.51		
어머니	433	96.09	12.45		4.47***
딸	399	92.19	12.70		

* P<.05, **P<.01, ***P<.001(이하 모든 표 동일)

〈표 3-1〉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의 주요인 분석결과

요인	피아항목	요인부하량			공통성	요인명령
		I	II	III		
I	실생활에 도움	0.8617	-0.0188	-0.0256	0.6679	미풍양속
	가정생활문화의 계승과 창조에 도움	0.7989	0.0245	-0.0875	0.6464	
	가정생활에서 중요	0.6772	0.1474	0.2977	0.5689	
II	세시음식의 장만은 여성의 일	-0.0050	0.8713	0.0674	0.7637	여성의 음식 장만
	식생활과 관련된 일은 여성의 일	0.1062	0.8657	0.0917	0.7962	
III	세시풍속과 세시음식의 장만은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율정도	0.0186	-0.0551	0.8353	0.7012	세시풍속의 비중
	세시풍속이 여성의 가사노동에 차지하는 비중	0.0370	0.2266	0.7394	0.7394	
고유치		2.0417	1.5291	1.1459		
설명변량		29.2	21.8	16.4		
누적변량(%)		29.2	51.0	67.4		

2) 모녀간의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요인
 〈표 3-2〉는 모녀간의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요인을 차이검증한 것이다.
 모녀간의 인식요인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각 요인 모두 딸 집단보다 어머니 집단의 평균값이 높게 나

타났다. 즉 어머니 집단이 세시풍속을 미풍양속으로, 세시음식장만과 관련된 일을 여성의 역할로, 세시풍속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비중이 크다고 보는 문항에서의 평균값이 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3-2〉 모녀간의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요인과의 차이검증

인식요인	Groups	N	M	S.D.	t-value
미풍양속	G1	454	7.59	1.40	4.45***
	G2	458	7.15	1.56	
여성의 음식장만	G1	460	4.70	0.82	13.28***
	G2	462	4.10	0.53	
세시풍속의 비중	G1	457	5.13	1.10	9.31***
	G2	449	4.44	1.14	

〈표 4-1〉 세시음식 장만과 여성의 역할

Groups		N	M	S.D.	Scheffé	F-t value
여성의 음식 장만	불교	327	4.60	0.83	a	14.51***
	기독교	195	4.28	0.76	b	
	천주교	85	4.44	0.73		
	무교	306	4.24	0.63	b	
	도시	654	4.29	0.69		40.8***
농어산촌	259	4.64	0.85			

4. 세시풍속과 관련된 여성의 가사작업에 관한 인식 및 실태

1) 세시음식 장만과 여성의 역할

〈표 4-1〉은 인식요인 중 “여성의 음식장만”을 가족환경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것이다.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된 것은 본인의 종교 및 성장지이며, 본인의 종교가 불교인 집단이 기독교와 무교인 집단보다, 농어산촌에서 성장한 사람이 식생활 및 세시음식의 장만을 여성의 일로 생각하는 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세시풍속과 관련된 여성의 가사작업

〈표 4-2〉는 인식요인 중 “세시풍속의 비중”을 가족환경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것이다.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된 변인은 본인의 종교 및 성장지, 어머니의 며느리 순위, 가족의 형태이다. 앞서 살펴 본 세시의 시행 정도 및 세시음식 장만과 여성의 역할에서 본인의 종교와 성장지는 전통지향적 혹은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이 두변인에 따른 세시풍속의 비중이 여성의 가사작업에 있어

크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세시 풍속과 관련된 가사작업의 비중이 만 며느리와 확대가족의 가정에서 큰 것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세시행사의 주도적인 입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세시음식의 장만과정에 나타난 가사노동의 사회화

〈표 4-3〉는 세시음식을 장만할 때의 상황을 가족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검증을 한 결과이다.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된 것은 가족의 형태에서였다. 즉 핵가족이 더 높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전통식품에 대한 상품대체화의 경향이 핵가족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한 이기춘(1989), 핵가족이 가사노동의 사회화정도가 더 높다고 한 문숙재(1988), 주부의 취업여부를 통제한 뒤 가족형태에 따른 가사노동의 상품대체화 경향을 살펴본 결과 핵가족이 상품대체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 이기영(1987)과 주부가 직업이 있는 핵가족의 경우가 더 높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한다고 한 이정우

(표 4-2) 세시풍속과 관련된 여성의 가사작업

Groups		N	M	S.D.	Scheffé	F-t value
세시풍속의 비중	불 교	326	5.02	1.14	a	8.29***
	기 독 교	191	4.52	1.23	b	
	천 주 교	86	4.77	1.18		
	무 교	304	4.71	1.12	b	
	도 시	650	4.67	1.18		26.2***
	농어산촌	257	5.10	1.08		
	만여느리	440	5.03	1.13		39.66***
	둘째이하	472	4.55	1.16		
핵 가 족	777	4.73	1.17		13.68***	
확대가족	137	5.13	1.06			

(표 4-3) 세시음식의 장만과정에 나타난 가사노동의 사회화정도(家口)

Groups	N	M	S.D.	t-value
핵 가 족	382	1.47	0.53	13.38***
확대가족	65	1.22	0.41	

(1992) 등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진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³⁾ 등을 생각해 보면 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전통음식에 대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증가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5.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이 시행, 만족, 가사작업에 미치는 영향

5-1) 세시풍속의 시행, 만족 및 가사작업에 미치는 인식요인의 영향

<표 5-1>은 인식요인이 각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⁴⁾ 한 것이다.

세시일 및 세시음식에 대한 실제 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풍양속”, “세시풍속의 비중”이

었다. 즉 세시풍속을 미풍양속으로 볼수록, 이와 관련된 일이 여성의 가사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수록 실제 세시일 풍속을 행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이 두 요인의 설명력은 약 10%로 매우 낮았다. 이는 실제 세시행사에 있어 우리의 관행은 여성의 인식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세시행사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풍양속”이었다. 즉 미풍양속이라고 여길수록 세시행사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았고 이 변인의 설명력은 14%정도 였다.

세시풍속을 둘러 싸고 발생하는 일이 자신의 가사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영향을 나타낸 요인은 “미풍양속”, “여성의 음식장만”에서 였다. 즉 세시풍속을 미풍양속으로 여길수록, 이와

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1)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1963년 약 37%에서 1991년에는 약 47%로 증가하였다.
 4) 회귀분석에 앞서 각 인식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0.18이하로 나타나 인식요인을 독립 변인으로 하였을 때의 multicollinearity가 없음을 제시할 수 있다.

〈표 5-1〉 세시풍속의 시행, 만족 및 가사작업에 미치는 인식 요인의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세시풍속의 실제 수행정도 B(β)	세시행사 후 만족정도 B(β)	가사작업에 미치는 영향 B(β)
F1(미풍양속)		1.9090(0.2576)***	0.1755(0.3745)***	0.1324(0.3142)***
F3(세시풍속의 비중)		1.3517(0.1728)***		
F2(여성의 음식장만)				-0.1139(-.2548)***
회귀상수		68.4359	1.6599	1.1896
Adjusted R ²		0.10	0.14	0.14
F-value		47.38***	146.67***	75.73***

B: 비표준화 계수 β : 표준화 계수

관련된 세시음식의 장만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길수록 자신의 가사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요인들의 설명력은 14%였다.

5-2)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이 시행, 만족 및 가사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

〈표 5-2〉는 인식요인과 시행, 만족이 여성의 가사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시도⁵⁾로 〈그림 1〉의 경로모형을 제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여성의 가사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변인의 총체적 상관관계는 “미풍양속”, “세시풍속의 비중”, “행사에 대한 만족”에서 약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p < .001$).

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미풍양속”, “세시풍속의 비중”, “행사에 대한 만족정도”이며 “미풍양속”은 “행사에 대한 만족정도”를 경유한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즉 세시풍속을 “미풍양속”으로 볼수록 “세시행사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가사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가사작업의 비중”이 여성에게 있어 클수록 이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계승의 견지에서 보면 세시풍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가사노동을 줄일려고 하는 전통음식에 대한 사회화현상의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

는 현 실정에서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각 가정에서 전통음식에 대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지않는다면 그들을 통한 우리 문화의 계승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V. 결과요약 및 제언

대구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 중학생 및 고등학교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 및 가사작업실태에 관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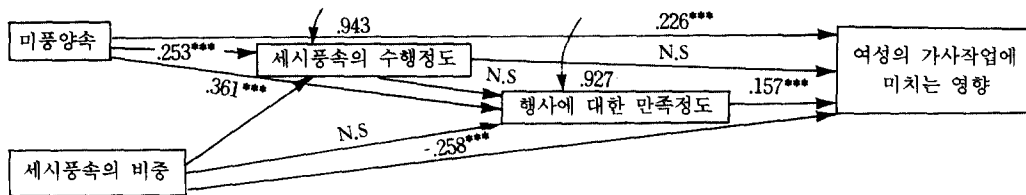
1. 세시풍속에 대한 실제 참여 상황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세시일(명절)로는 설, 추석, 대보름, 동지, 삼복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환경변인 및 모녀간에 따른 세시풍속의 시행정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집단, 불교를 믿는 집단, 농어산촌 출신자가 다른 집단보다 실제 행사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식에 관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요인이 채택되었다. 이들을 “미풍양속”, “여성의 음식장만”, “세시풍속의 비중”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모녀간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 두 집단간

5) 이 연구모형은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었으므로 연구목적에서 제시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된 가설적인 것임을 밝혀둔다.

〈표 5-2〉 세시풍속과 관련된 인식요인이 여성의 가사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총체적관계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세시풍속의 수행정도 R ² =.11 F=31.93***	미풍양속	.275***	.253***		.253	.02
	세시풍속의 비중	.192***	.167***		.166	.03
세시행사에 대한 만족정도 R ² =.14 F=33.28***	미풍양속	.376***	.361***		.361	.02
여성의 가사 작업에 미치는 영향 R ² =.16 F=31.16***	미풍양속	.279***	.226***	.57	.283	-.004
	세시풍속의 비중	-.217***	-.258***			-.004
	행사에 대한 만족	.249***	.157***			.09



〈그림 1〉 세시풍속이 여성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모형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3. 세시풍속과 관련된 여성의 가사작업 실태에서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여성의 음식장만'을 차이검증한 결과 본인의 종교 및 성장지에서, '세시풍속의 비중'을 차이검증한 결과 본인 종교, 성장지, 며느리 순서, 가족의 형태에서, 그리고 '세시음식에 대한 가사노동의 사회화정도'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4. 인식요인이 각 종속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세시일 및 세시음식의 실제 시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풍

양속", "세시풍속의 비중"이었고, 세시행사에 대한 만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풍양속"이었고, 세시풍속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이 자신의 가사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풍양속"과 "세시풍속의 비중"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그러나, 종속변인에 대한 인식요인의 설명력은 모두 약 14% 이하였다.

5.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요인과 시행, 만족이 여성의 가사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적인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미풍양속", "세시풍속의 비중", "행사에 대한 만족정도"이며 "미풍양속"은 "행사에

대한 만족정도”를 경유한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딸에 비해 어머니들이 전반적으로 세시풍속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어머니의 세시풍속에 대한 경험여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딸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꼈다.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미풍양속 등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 세대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 세대에게 세시풍속에 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단체 및 언론이나 각종 메스컴 등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홍보교육프로그램을 시청각적인 방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2) 전통음식을 무조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 진다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의 가사노동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전통음식을 계승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가사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가정기기를 활용한 조리법의 활용 및 이에 대한 개발, 그리고 이를 보급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세시풍속에 대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절기에 따른 농경사회적 요소 등과 관련이 많던 행사들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종교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세시풍속이 불교적 성격이 강한 행사들이 많았던 관계로 불교를 믿는 집단의 세시행사에 대한 비중의 정도 및 참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 각 종교 단체에서 보내고 있는 기념일 등도 오늘날의 세시풍속으로 이해해야 하는 지 등의 새로운 문제제기가 된다고 여겨지며 이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이성우,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1981, pp.633-639.
- 2) 임동권, 한국세시풍속, 집문당, 1985, p.9.
- 3) 장수근,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1984, pp. 15-16.
- 4) 강무학, 한국세시풍속기, 동호서관, 1981, p.15.
- 5) 손인수, 한국인의 교육세시풍속, 문음사, 1991, pp. 114-115.
- 6) 장정룡, 한·중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pp.17-18.
- 7)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pp.4-6.
- 8) 고대민족 문화연구소, 제4권, 1982, pp.91-93.
- 9) 이사현 외,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87, pp. 210-213.
- 10) 김명자, 한국세시풍속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9.
- 11) 윤서석, 민속과 음식, 한국민속학, 제10권, 민속학회, 1977, p.170.
- 12) 윤서석, 한국음식, 수학사, 1980, pp.102-112.
- 13) 강인회 외, 한국식생활풍속, 삼영사, 1984, pp. 28-34.
- 14) 강인회, 한국식생활사, 삼영사, 1989.
- 15) 이광규 외, 한국가정생활사,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 pp.170-237.
- 16) 이차숙 외, 한국가정생활사, 교문사, 1988, pp. 202-278.
- 17) 윤서석, 한국의 절식 풍속, 대한가정학회, 제3권, 1962.10, pp.385-392.
- 18) 장명옥, 가정관리학, 교문사, 1991, pp.150-158.
- 19) 문숙재 외, 가사노동, 신평출판사, 1986.
- 20) 손직수, 조선시대 여성교훈서에 관한 연구, 성규관대 박사학위 논문, 1981.
- 21) 이영미,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22) 임양순, 우리나라 절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 제1권 4호, 1986.
- 23) 김향희 외, 한국절식의 시행실태에 관한 지역별

- 비교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제6권 2호, 1991.
- 24) 나문숙, 세시풍속에 관한 주부들의 관심도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89.
- 25) 이기영,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7.
- 26) 이기춘 외, 산업사회의 소비자행태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 27권 2호, 1989.
- 27) 문숙재 외, 생활 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3호, 1988.
- 28) 이정우 외,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1호, 1992.
- 29) 문숙재, 가정생산, 신광출판사, 1991.
- 30)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77.
- 31) 이석호 역, 경도잡지, 을유문화, 1977.
- 32) 이석호 역, 열양잡지, 을유문화사, 1977.
- 33) 이석호 역, 동국세시기, 을유문화사, 1977.
- 34)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86.
- 35) Ortiz, B., Macdonald, M., Ackerman, N., and Goebel, K., "The Effect of Homemakers' Employment on Meal Preparation Time, Meals at Home, and Meals Away From Home". Home Economics Research, vol.9, 1981.
- 36) Diana, T.M., "Mother's Employment and the Family Meal",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82, 1990.
- 37) 壁谷澤 万里子, 長澤 由喜子, 家事 サービス の 利用要因に 關する 構造的 分析(第1報), 日本家政學會誌, Vol.39.No.11, 1988.
- 38) 壁谷澤 万里子, 長澤 由喜子, 家事 サービス の 利用要因に 關する 構造的 分析(第2報), 日本家政學會誌, Vol.41.No.8, 1990.